문경공 권제 자료관 개관식 거행

자료관과 문경공부조묘(오른쪽)

문경공(文景公) 권제(權踶, 추밀공파 17世, 1387~1445)의 자료관 개관식이 6월 10일 11시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2리에서 안해성 음성군의회 의장, 염규화 소이면장, 김태영 갑산2리 마을 이장, 권오협 문충공 및 총제공 종중 회장, 권영우 문경공 종회장, 권순백 제간공 종중 회장, 권기택 연천공 종중 회장, 권영한 문충공 종중 고문, 권오섭 문충공 종중 관리소장, 권오훈 대종회 문헌편찬위원장, 권행완 대종회 편집국장, 권혁중 문경공 종중 총무, 권오성 마을 어르신, 권기준 종손, 후손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순복 문충공 종중 총무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문경공의 자료관은 문경공의 위패를 봉안한 문경공부조묘(文景公不祧廟,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제17호) 바로 밑에 자리한다.

권영우 문경공 종회장은 축사에서 권기준 종손이 자료를 규모 있게 잘 관리하여 전시관도 건립했다. 그동안 종가댁에서 보관하던 자료를 전시관에 진열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자료들이 전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준 종손은 인사말에서 "전시하는 품목은 소중한 유물이다. 서울에서 보관하다 전시를 위해 가지고 왔다. 그중에는 600여년 된 교지도 있는데 영풍군(永豊君) 권길(權吉, 1541~1592, 22世) 선조의 교지는 두 점이나 된다. 서류함, 벼루집, 가승, 호패. 성화보 3권, 후갑인보 족보, 용비어천가 등 약 200여권을 진열한다. 뿐만 아니라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16世) 선조,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1537~1599, 22世) 도원수, 문경공 권제 선조의 판넬도 전시했다. 책들은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반듯한 자료관이 되길 기대한다. 제 자손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관하길 당부한다. 원근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공 권제 교지

염규화 소이면장은 축사에서 "소중한 자료를 모아 자료관을 개관해 주신 후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협 문충공 및 총제공 회장은 축사에서 "정말 장한 일 하셨다. 문경공 선조는 안동권씨 추밀공파이고 문충공 권근 선조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총제공이고, 둘째는 오늘 자료관을 개관하는 문경공이며, 셋째는 태종의 부마 제간공이며, 넷째는 안숙공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 문경공이다. 안동권씨에는 사시(四始)가 있다. 안동권씨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네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기로소이다.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의 문관으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에게 경로잔치로 기로연을 베푸는 것인데 문경공의 할아버지 정간공(靖簡公) 권희(權僖, 1319~1405, 15世) 선조가 처음으로 기로소에 들어가셨다. 둘째는 문충공 권근 선조가 대제학으로 초대 문형을 지냈다. 셋째는 조선시대는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면서 독서당에 들어가 공부하도록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가 있었는데 호당공(湖堂公) 권채(權採, 1399~1438, 17世) 선조가 가장 먼저 사가독서를 했다. 넷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씨의 성화보이다. 성화보는 문경공 권제 선조가 시작하여 소한당(所閒堂) 권람(權擥, 1416~1465, 18世)이 외손인 서거정을 시켜 완성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안동권씨의 사시이다. 저는 총제공(摠制公, 權踐, 양촌의 큰아들이자 문경공의 형, 17世) 후손인데 총제공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유물이 없다. 그런데 문경공 후손들은 자료관까지 개관하니 말할 수 없이 부럽기 그지없다. 음성 갑산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다. 이 갑산은 안동권문의 뿌리이자 안동권문의 중심이다. 자료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서류함과 벼루집 등

권기준 종손

이어서 일행은 자료관으로 이동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고 제막식이 끝나자 곧바로 관람객들은 후손들이 600여 년이나 소중하게 보관한 보물 같은 유물을 직접 관람했다. 이날 개관한 자료관에는 문경공 권제와 영풍군(永豊君) 권길(權吉)의 자료가 주를 이뤘다.

문충공 양촌 권근이 1409년에 서세하고 아들 문경공 지재(止齋) 권제가 태종 14년(1414년) 알성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자 태종이 "내 일찍 권근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 이제 장원에 그 아들을 얻고 나니 슬픔이 가시는 듯하고 마음이 무척 든든하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문경공은 태종 18년(1418년) 6월에 왕이 3남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세자좌문학으로 선발되어 8월에 부왕의 선위로 충녕이 즉위하자 첫 경연에서 부검토관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경공의 업적은 조선 개국 후 삼봉 정도전, 정총 등과 고려사 편찬에 참여한 일과 세종때 용비어천가를 정인지 안지 등과 찬진한 일이 가장 손꼽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관에 교지가 두 점이나 전시되어 있는 문경공의 5대 종손인 영풍군(永豊君) 권길은 1541년(중종36년) 12월 17일에 자료관이 위치한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에서 태어나 금산 제원찰방, 군위현령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1년 전 1591년 상주목 판관에 부임하였다.

1592년 4월 14일 일본군은 부산진을 함락시키고, 4월 15일에는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부산-양산-청도-대구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상주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기다리겠다는 핑계로 산속으로 도주하였고 판관(判官, 종5품 벼슬) 권길만 홀로 고을을 지키고 있었다.(징비록) 적군의 대부대가 몰려와서 조총 10여 개를 가지고 쏘아대니 총에 맞은 사람은 곧바로 쓰러져 죽었다. 순변사 이일은 일이 다급한 것을 알고 말을 급히 돌려 북쪽으로 달아나니, 군사들은 크게 혼란해져서 각각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도망쳤으나 살아간 사람은 몇몇에 지나지 않았고, 종사관(군영에 딸린 종6품관) 이하 미쳐 말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적군에게 살해되었다.(징비록) 종사관은 윤섬(尹暹, 1561~1592)·이경류·박지이다.

상주목사도 도주해 버리고 순변사도 달아나 버렸지만, 권길은 싸움이 벌어지기 전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옷깃에 혈서로 이름을 써놓고 하인에게 주면서 "내가 죽거든 이것을 징표로 삼아 나를 거두거라"(고 상주판관 권길 전망사적) 하였고, 병졸들에게는 "진충보국할 날이 지금이다. 나라를 건지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이준, 판관 권공 사의비명) 라고 하였다. 권길은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끝내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풀어 놓고 고향으로 가라고 애마를 보내고 적군에 맞서 사력을 다해 분전의 분전을 거듭하다 왜적에게 사로잡혔으나 항복하지 않자 일본군은 그를 참수하고, 그의 수급을 가져갔다. 그때 나이 52세였다.

자료관 현판 제막식

호장 박걸(朴傑) 또한 권길이 의관(衣冠)을 바로하고 죽자 '우리 후(侯)가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우리 후를 져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함께 죽었다.(순조 25년 9월 16일)

며칠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애마는 상처투성이에다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날뛰었다. 부인은 불길한 예감에 말의 안장 사이를 살펴보니 속적삼에 혈서로 쓰여진 유서가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하여 이곳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나의 시체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으로 대신하여 장사를 지내라."(吾必死此 似難收屍 以 歸葬)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권길의 유언에 따라 집안사람들은 옷자락을 수습하여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능안의 덕현산 선영 아래에 장사하였다. 종손 권기준이 기억하는 전설에 의하면 권길의 애마는 의관을 내려놓고 다시 상주로 출발하다가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집안사람들은 애마를 갑산리 뒷산에 후이 장사지내고 '충마총(忠馬塚)이란 묘비를 세웠다. 근래에는 제단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과 자료관 개관식에 참석한 후 영풍군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묘소 앞 석의(石儀) 가운데 동편에 서 있는 인석(人石)의 머리 부분이 칼로 친 듯이 잘려 있었다. 이는 영풍군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권길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했다. 권길의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고향 갑산리 덕현 정자에 충신정려(忠臣旌閭)를 내리고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하였다. 1772년(영조 48년)에는 임진왜란 3주갑 180년을 맞아 충신정려를 중수하며 그 기문을 번암 채제공이 지었다. 이 기문은 현재 음성군에서 보관하고 있다.

1675년 숙종(肅宗) 원년에 비로소 충렬사(忠烈祠)를 지어 권길과 박걸을 향사했다.(순조 25년 9월 16일, 1825년 청 도광(道光) 5년) 정조는 충신 윤섬·이경류·박지 등을 권길(權吉)의 사우(祠宇)에다 합향하려고 하면 신위의 차례며 사우의 공간 등이 과연 불편하다고 하니, 특별히 단호(壇號)를 충신의사단(忠臣義士壇)이라 내려준다.(정조 16년 12월 24일,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즉 별도의 단호까지 내려부며 판관 권길과 종사관 윤섬 등을 합향하지 마라고 특별히 지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상주시는 1991년 충렬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권길과 윤섬 등의 위패를 합향하고 1993년 6월 4일 제1회 제향을 시작으로 매년 6월 4일 임란북천전투에서 산화한 호국 선열들을 추모하고 있다.

그러나 충렬사와 충신의사단을 합향하고 보니 충렬사의 주벽이 판관 권길에서 종사관 윤섬으로 바뀌고 말았다. 배향 위차를 증직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윤섬은 영의정을 가증 받았고, 권길은 이조판서로 증직되었다. 죽기를 맹세하고 임전무퇴의 결기로 싸웠던 임진왜란 당시의 실질적 리더는 권길이었다. 품계로 따지더라도 판관은 종5품이고 종사관은 군영에 딸린 종6품이다. 또한 권길은 1541년생이고 윤섬은 1561년생이다. 권길이 윤섬보다 20년이나 연장자이다. 장유유서는 삼강오륜의 핵심 덕목이다. 품계로 보나 유교국가 조선의 삼강오륜의 문화로 봐서라도 뭔가 초점이 불일치하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위차(位次) 시비와 작헌(酌獻) 시비 하나 없었는지 그게 더 이상하다.

이는 판관 권길(權吉)이 밤새도록 촌락 사이를 수색하여 수백 명을 얻었고, 이일이 또 창고의 곡식을 내어 흩어진 백성들을 유인해 모집하여 수백 명을 얻고 나서 창졸간에 대오를 편성하니 군사의 총수가 6천여 명(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900여 명이 전망(戰亡)했는데 그 900명의 명단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6천 명이 참전한 전투라면 비록 패전했을지라도 대규모의 대전투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인데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금산에서 중봉 조헌과 함께 산화한 700의총이 말해 주듯, 900명이 전사한 전투라면 그 역사의 무게가 어디 가벼운 사건에 그치겠는가. 임진왜란사에서 상주 임란북천전투의 중요성과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문경공 권제의 후손들이 선조의 교지와 필묵 등을 600여 년 집안에서 보관하다 고향 갑산리에 자료관을 개관했다. 이로써 갑산리가 안동권문의 성지로 재탄생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영풍군 권길의 묘

영풍군 권길 묘소 앞 인석. 목이 칼에 잘린 듯한 모습

제16회 권오수 한국보일러대상 시상식 개최

권오수(權五秀, 좌윤공파, 35世, 대종회 부회장) 한국보일러사랑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기와 한정식당 대연회실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권오수 한국보일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보일러사랑재단은 기술재능 나눔 단체로 2007년 설립했다. 이번 시상식은 권오수 이사장의 자원봉사·직업훈련 50주년 기념식을 겸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태환 차장(에이원코퍼레이션)이 보일러운전대상을 수상했다. 보일러운전대상 이외에도 보일러 교육대상, 보일러설비부문 대상, 에너지진단 대상 등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오수 이사장은 "오랜 세월 타인을 가르치면서 에너지, 보일러, 고압가스, 공조냉동, 흡수식냉온수기, 히트펌프 등의 안전·에너지 분야의 직업 훈련교사로 일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보일러 대상을 받은 모든 분들도 본인들이 배우고 연구한 기술을 후학에게 전수해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함이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보일러대상은 국내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에너지관리 실무경력을 보유한 장인들에게만 수여하는 만큼, 국내 에너지업계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보일러대상은 2008년 권오수 이사장이 사비를 들여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본 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전국의 우수기능인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상으로 지금까지 247명이 수상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 횡성 종중 일본 간사이 지방 문화탐방기

권순구(추밀공파 37世, 82) 전력부위공(展力副尉公, 21世) 종중 회장과 종원 및 가족 28명은 3박 4일 일본 간사이 지방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2022년 많은 종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종중 연례 행사인 해외 문화탐방을 2023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문화탐방단은 횡성 3명, 원주 9명, 포항 2명, 서울 10명, 시흥 4명 총 28명으로 구성되었고, 2023년 6월 14일 오전 7시 40분에 인천공항에 집결하였다. 탐방을 시작하기에 앞서 권순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통한 즐거운 탐방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6월 14일 첫날 10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2시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오사카로 40분 이동하여 첫 탐방지로 오사카 기타하마의 레트로빌딩과 아름다운 강변 카페로 가득한 카페거리를 거닌 후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를 탐방하였다.

이튿날 교토로 1시간 30분 이동하여 일본 주민들과 뒤섞여 노면전차를 타고 일본 도시 주변과 목조로 지어진 주택가를 관광하였다. 소원을 기원하는 노노미야 신사,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은 특별했다. 중식 후 교토의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절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오사카로 이동하여 오사카의 대표적 관광지 오사카성과 천수각을 둘러보았다. 높다란 성, 깊은 넓은 해자, 성 쌓을 때 쓰여진 아주 커다란 바위 등이 인상적이었다.

셋째 날 나라로 1시간 이동하여 많은 사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가까이 다가오는 사슴공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크고 높은 목조건축물 동대사를 본 후 나라마치 마을을 탐방하였다. 중식 후 1시간 30분 고베로 이동하여 1995년 발생한 고베 지진의 피해 흔적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한 메모리얼파크와 아름다운 고베 하버랜드는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하루였다. 전통이 깊은 온천 마을 아리마온천에서 온천욕을 하고 오사카로 이동하였다. 마지막 날 호텔 체크아웃 후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40분 이동하여 13시 출발하여 14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라 동대사에서 단체 사진

여행을 통하여 종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증진하고 종원들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종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기 되었다. 선조의 얼을 이해하고 이어가자는 숭모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종중 행사가 되었다는 것과 추향제를 기약하자는 권순구 회장님의 총평를 끝으로 일본 문화탐방을 마무리하였다.

권용준 전력부위공 종중 총무